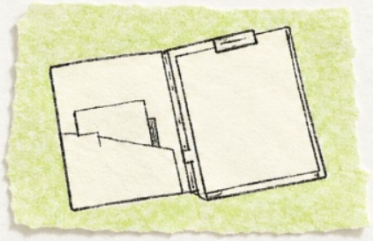
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사례

시작조차 어려웠던 내가 다시 움직이게 된 방법

무기력했던 나의 포트폴리오 재정비 기록



**AI는 내 일을 대신한 게 아니라,
시작을 도와줬다.**

01.

해야 하는 건 아는데…

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건 알았다.
그런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다.
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느껴졌고,
시작은 자꾸 미뤄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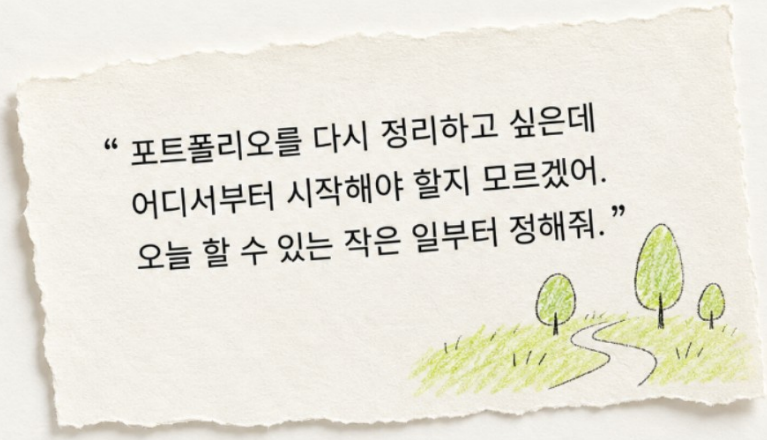
가장 어려웠던 건 첫 시작이었다.



02

그래서 AI에게 물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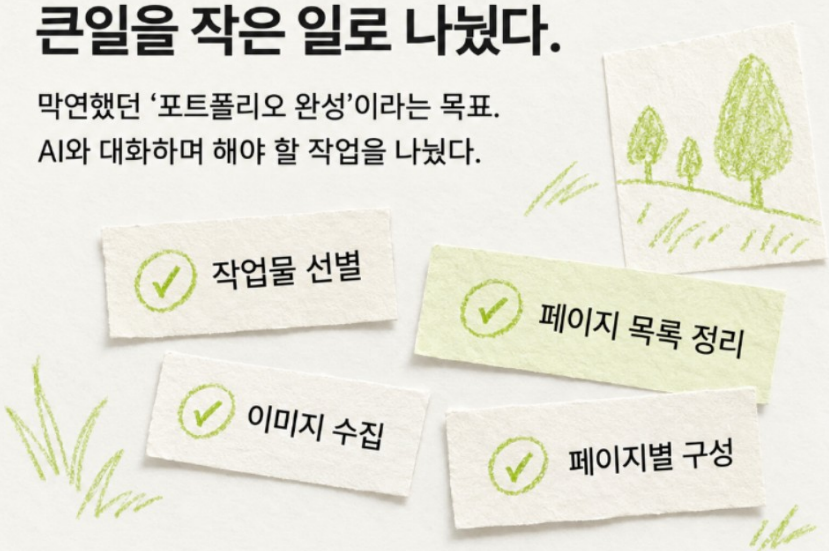
처음부터 완성된 결과물을 부탁하지는 않았다.
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봤다.



첫 번째 목표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다.

큰일을 작은 일로 나눴다.

막연했던 ‘포트폴리오 완성’이라는 목표.
AI와 대화하며 해야 할 작업을 나눴다.



무엇부터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.

막막했던 일이,
하나씩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.

혼자 끙끙대는 대신,
물어봤다.



"이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건 뭘까?"

"내용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?"

"이 레이아웃을 더 보기 좋게 바꿀 방법은?"

AI가 제안한 초안을 보며
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시 고쳤다.



**AI의 답을 그대로 쓰기보다,
대화하며 다듬었다.**

초안이 생기니,
시작이 조금 쉬워졌다.

빈 화면 앞에서는
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.

AI가 만들어 준 초안을 보니
내가 원하는 것과 고치고 싶은 것이 보였다.

처음부터 잘 만들려고 하기보다,
일단 나온 것을 조금씩 다듬었다.

완성된 답보다,
손댈 수 있는 초안이 필요했다.



AI를 활용하며 달라진 점

막연했던 목표
→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작업으로

혼자 붙잡고 있던 고민
→ 질문하며 정리할 수 있는 문제로



손대기 어려웠던 빈 화면
→ 조금씩 고칠 수 있는 초안으로

작업이 단번에 끝난 건 아니다.
그래도 다시 손을 움직이게 됐다.

쉬었음 청년의 작은 시작

시작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, 이렇게 물어보세요.

하고 싶은 일이나
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,

**"지금 내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?
시작할 마음이 들도록
아주 작은 첫걸음부터 같이 정해줘."**



**AI는 내 일을 대신한 게 아니라,
시작을 도와줬다.**